대한지리학회지 제48권 제6호 2013(967~977)

풍수지리의 현대적 재해석

옥한석* · 정택동**

A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toward Pungsu Geography

HanSuk Oak* · TeckDong Chung**

요약 : 이 연구는 첫째로 고전적 풍수지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해보고, 둘째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라고 하는 환경론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해석되어 온 시도를 정리해보며, 셋째로 환경론이 전통생태론이나 적응전략으로 재해석된 자연과학적인 측면을 부각하고자 한다. 고전적 풍수지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기'와 '발복'이며 누가 언제 행운을 얻게 되는 지에 대한 '예견'이다. 명당을 찾는 경험론적 방법이나 산도로 표현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의 주관성과 철학적인 면의 취약점 때문에 모호한 환경론이나 상징체계라고 하는 면에서 지리적 지식으로 수용되는 현대적 시도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전통적인 생태학, 혹은 생리적 쾌적성을 추구하는 적응전략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자연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대중적인 관심과 수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전적 풍수지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발복'과 '예견'이 '건강과 장수' '치유' 등 측면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하는 지에 관하여 연구의 관심을 두게 된다.

주요어 : 고전 풍수지리의 내용, 현대적 해석, 재해석, 전통생태론, 적응전략, 건강과 장수, 치유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re contents of classical geomancy, and compromising the contemporary interpretation. Also it empahsizes the scientific aspects of reinterpretation. The cores are '*JiGi*' and '*Balbok*'(Positive change in fortune), followed by subjective methodology, which give a provision about right Pungsu place. Although there are weaknesses in terms of geomancy, scholars searching for classical geomancy have scientific ideas including traditional ecology and adative strategy. Traditional ecology with supported natural science becomes ecological science, and the adaptive strategy is to search for more physiologically comfortable place. These two reinterpretations give new perspective and subjects which lead to traditional view of nature or symbolic system. The subjects could have relationships with health or living a long life or heal.

Key Words : core contents of classical geomancy, contemporary interpretation, reinterpretation, traditional ecology, adative strategy, health, heal

2012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12 Research Grant fro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ock@kangwon.ac.kr

** 강원대학교 박사과정(Ph.D. Candidat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jiuisa@hanmail.net

1. 서론

1) 연구 목적과 방법

오늘날 풍수지리가 일반인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가? 이 말은 풍수지리(Geomancy)가 하나의 학문적 체계로서 풍수지리학(Pungsu Geography)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일반인이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채택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이든 간에 풍수지리가 전통시대에는 제왕학(帝王學)으로서의 일부 기능이 있어 음양 잡과라는 과거 시험에 의하여 전문가가 관료로서 선발되기도 한 분야였다[1]. 하지만 현대 대중사회에서는 대다수가 아마 미신 또는 잡술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풍수지리는 '발복'에 관한 전통적 경험체계이며 '발복'이 점치는 일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제 풍수지리가 과학이냐 아니냐 하는 상반된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이 연구는 풍수지리가 하나의 과학적인 체계가 될 수 있는 학문의 분야라는 입장에서 풍수지리가 그동안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 여러 학자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이들 주장이 현대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진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첫째로 고전적 풍수지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해보고[2], 둘째로 그 내용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라고 하는 환경론적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해석되어 온 기존의 여러 시도를 정리해보며, 셋째로 환경론의 기존 해석을 재해석하여 과학적 측면을 부각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 동안의 풍수지리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점도 있지만 고전적 풍수지리와 현대적 풍수지리를 대비시켜 논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현대적 해석이 사상적 철학적 측면 이외에는 지리학계 내에서 연구가 빈곤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향후 대중적인 관심과 수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전적 풍수지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분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내용인 '발복'과 '예견'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리된 후 '건강과 장수' '치유' 등 측면에서 어떻게 새로 해석되어야 하는 지에 관하여 연구의 관심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 풍수지리에 관련하여 출간된 여러 서적과 논문 중 학계에 보고되고 출간된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문헌 연구를 하게 된다[3]. 이때의 박사학위 논문이란 지리학계뿐 아니라 건축학, 환경학 등 여러 분야에서 제출된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고전적 풍수지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풍수지리를 하나의 사상이나 생태학이라고 하는 입장과 구별하여 실제 재야 풍수전문가(geomancy practioner)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전적 풍수지리'는 미래학에서 말하는 '예측'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예언' 또는 '예견'을 다루기 때문이다.

2) 연구 동향

한국의 전통 풍수 내용에 관하여 근대적으로 소개한 연구서는 일본인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풍수(1931)』이다. 이는 문헌 및 현지조사 자료가 풍부하여 식민 통치의 자료 획득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연구 입문서로서 손색이 없다. 그 후 최창조 전 서울대교수가 『한국의 풍수사상(1984)』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한민족의 토지관과 지리관이란 입장에서 풍수연구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이전부터 지리학계에서는 풍수지리는 여러 학자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는데 한국인의 독특한 자연관(윤홍기, 1994; 2001; 2004), 환경론적 · 지역지리학적 · 지리교육적 의의(이몽일, 1990), 풍수의 기원 · 연구 과제 · 전통적 산개념 · 지기의 개념 · 전통취락의 입지 · 풍수의 영향과 상징성 등 여러 주제가 다루어졌다(홍순완 · 이몽일, 1989; 최원석, 1992; 성동환, 1992; 심혜자 · 최기엽, 1993; 양보경, 1994, 권선정, 2003). 양보경은 제29차 세계지리학대회에서 간행한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2001)의 '전통시대의 지리학'에서 풍수와 자연관이란 입장에서, 김덕현은 『한국역사지리(2011)』의 '전통적 자연관'에서 풍수는 하나의 사상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전통적인 자연관 혹은 사상이라는 입장에서는 다루었고 대개 풍수

지리의 발복성에 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발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옥한석이 '쾌적성의 과학'(2007b)이라고 최초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며『안동에서 풍수의 길을 묻다(2012)』에서 풍수지리를 지리학으로 매김하는 시도를 하였다. 영문으로 'Pungsu Geography'라고 일컫는 시도를 하였다.

풍수지리에 관한 최원석(2000), 권선정(2003), 편은범(2006), 조운연(2008), 이재영(2009), 박정해(2012) 등의 박사학위논문은 비보숲, 풍수 경관, 왕릉, 건축 등을 대상으로 풍수적 해석 혹은 촌락경관의 풍수상징적 해석을 하였다[4]. 풍수지리가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졌지만[5] 지리학 아닌 분야의 대표 연구로는 박시익 박사의『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1999)』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풍수지리를 다루었다. 이들 연구자의 해석은 해석에 불과할 뿐 구체적으로 '발복'과 '예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메카니즘은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2. 고전적 풍수지리의 내용

1) 지기와 발복

풍수지리란 땅의 어떤 곳에 신비로운 힘, 기가 모여 있어 그곳에 사람이 살거나 죽은 자를 매장하게 되면 그곳에 사는 자나 죽은 자의 후손이 행운을 얻게 된다는 일종의 전통적 지식 체계이다(최창조역, 2004:김동규 역, 1992). 역으로 잘못된 곳은 불운이 오게 된다는 길흉의 경험체계이다. 이에 '지기'와 '발복'이 전통 풍수지리의 핵심 내용이 된다. 행운을 과연 누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풍수지리는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이 되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하나의 철학체계 혹은 믿음체계로 간주하였다. 무엇보다도 과학적 지식체계가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신비로운 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기(地氣)라고 하는 것이 어떤 풍수사에 의하여, 이때의 풍수사란 그 신비로운 힘이 모여 있는 곳을 잘 아는 전문가임을 말하는데, 어떤 풍수사가 그가 신비로운 힘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측정을 해보았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된 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를 오로지 믿음체계라고만 몰아세울 수 있을까?

우선 기에 관한 언급을 여러 풍수지리 문헌 중 대표적인『금낭경』이라는 책의 〈기감편(氣感篇)〉에 보면 기는 땅 속에 돌아다니고 땅에는 사세(四勢)가 있고 기는 팔방(八方)을 따른다고 하였다[6]. 좀 더 자세히 보면 '무릇 음양의 기는 내뿜으면 바람이 되고, 오르면 구름이 되고, 떨어지면 비가 되며, 땅속을 돌아다니면 즉 생기가 된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고 하여 기를 모아 흩어지지 않게 하고 기를 행케 하다가 멈추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夫陰陽之氣縕而爲風升而爲雲降而爲雨行乎地中則爲生氣)'(최창조, 2004)고 보았다. 풍수라고 하는 말은 기가 물에 닿으면 머물고 바람을 타면 흩어지기 때문에 풍수란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기라고 하는 것은 물과 바람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풍수의 현대적 해석은 이에 특별히 주목을 하였지만 기(氣)와 관련시켜 논의하지 못하였다. 아무튼 기가 모인 곳에 사람이 살거나 망자를 매장하면 그 후손이 행운을 얻는다고 하는 개념은 땅과 인간의 운명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되었다고 보겠다. 그 관계가 잘 된 경우를 '발복'이라고 하는데 발복의 내용은『금낭경』의 〈취류편(取類篇)〉은 구체적으로 가족의 안위, 개인의 길흉화복, 높은 벼슬, 부의 축적, 장수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최창조, 2004). '지기'와 '발복'은 최창조의 분류(1984)에 따르면 기감응적 인식체계에 해당되며 이는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 소주길흉론(所主吉凶論)으로 뒷받침된다. 동기감응론은 같은 기를 타고난 생물, 물건은 서로 감응하여 영향을 주고 받으며, 소주길흉론이란 어떤 인물의 행적과 평판이 명당의 획득과 발복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2) 예견

'발복(發福)'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길흉화복,

안위와 출세 등이 실행될 것이라는 '예견'으로 표현된다. 풍수지리의 전통적 내용은 물과 바람의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가 어떤 장소에 모이고, 그러한 장소가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주므로, 어떤 일이 언제 누구에게 생기는가 하는 '예견적'인 것으로 요약된다. '예견'은 도참사상(圖讖思想)이라고도 하여 어떤 왕조의 흥망성쇠가 도읍지의 흥망과 관련이 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이병도, 1980) 어떤 가문이나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7].

고전적 풍수지리에서 '예견'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로 산과 수의 어떤 배합형태, 이른바 산줄기와 물줄기 흐름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보고 길흉과 그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혈처를 둘러싸고 있는 청룡과 백호, 주산과 안산과의 관계에 의하여 '발복'의 시기와 강도, 지속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이재영, 2009). 음택과 양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과 수의 배합 형태는 무수히 존재하며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매크로한 부분까지 다양한 느낌과 해석이 풍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개인과 가족의 운명과 일치시키게 된다. 점쟁이나 관상가가 느낌과 관상을 보고 점(占)을 치듯이 풍수사도 산과 수의 배합 형태를 가지고 점(占)을 친다고 볼 수 있다. 전수되어 온 오랜 경험, 예를 들면 명당을 에워싸는 오른쪽 낮은 산줄기 백호(白虎)가 뒤집어져 있고 산만하면 그 집안의 아내와 딸, 며느리들이 무익하다고 예견하게 되며 점쟁이처럼 맞출 수도 있다. 왜 백호가 여성과 관련이 있는가?는 오랫동안 전수되어온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과학적 원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백호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소와 예견을 통계적으로 조사해볼 필요는 있다.

두 번째로 '사세팔용법'을 근거로 하여 음양오행설에 따라 예견하는 방법이 있는데(조인철, 2011) 음택과 양택은 조금 다르다. 음택의 경우 오늘날의 나침판 상에 여러 개의 동심원을 그리고[8] 그 중 중앙으로부터 6번째 원에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12지간(地干)과 '갑을병정경신임계'의 8 천간 및 4'건곤간손'의 12가 조합된 24 구간(또는 방위)이 표시되는데[9]이들은 다시 지간과 천간이 두 쌍식 짝을 이룬 12쌍이 '목금수화'의 네 종류의 3쌍을 표시한 것에 따라 음양오행의 '예견'이 이루어진다. 24개의 구간(방위라고 할 수도 있다)이 표시된 원은 주로 음택 이른바 묘지를 가지고 개인과 가문 혹은 왕조의 흥망을 예견하게 된다. 이들 세 쌍 식 된 '목금수화'는 원 상에 정삼각형의 방위로 배치되며 이들이 삼합(三合)[10]이라고 일컫게 된다. 명당에 나침반을 남북으로 정치시켜 놓고 망자의 누워 있는 방향이 발복의 방향이 된다. 이를 좌향이라고 하는데 좌향이 24개 방위의 하나에 걸치게 된다. 그 방위가 만약 '목금수화' 중 목(木)에 해당되면 목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 화(火)의 해에 발복한다는 음양오행론적 해석, 이른바 목생화(木生火)을 하게 되어 이것이 바로 '예견'이다[11]. 예를 들어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묘에 관한 〈숙빈최씨묘소도형여산론(淑嬪崔氏墓所圖形與山論)〉에 따르면 "참왈사유축생인수음 병신지년발복(讖曰巳酉丑生人受陰 丙辛之年發福)"[12]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예이다(이형윤 · 성동환, 2010) 숙빈 최씨의 좌향이 동향 유좌(酉坐)이고 유좌는 금(金)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金)에 해당되는 사유축 해의 어느 하나 해에 태어난 사람이 수(水)의 해인 병신의 어느 해에 발복한다는 것이다.

양택의 경우는 8괘의 방위가 표시된 나침반의 중앙원을 중심으로 하여 안방, 부엌, 거실, 이른바 주택의 3요의 배치를 가지고 예언하게 된다. 8개의 방위[13]는 4개씩 조합되어 동사택, 서사택으로 나누어지며 주택의 3요가 동사택이나 서사택 범위 안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이승노, 2011). 문, 안방, 부엌 모두가 같은 사택 안에 들어가면 최선이며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면 최악이 된다[14]. 또한 거주자는 자신의 출생 천간(天干)에 의하여 동사택인인가 서사택인인가가 결정되며 동사택인은 동사택 범위 안에 주택의 입구와 안방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동, 서사택은 4개의 방위가 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괘의 조합이 주역의 해설에 의한 예견이 되는 것이다.

3) 명당을 찾는 방법

다수의 연구자가 풍수는 하나의 철학체계라고 간

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기가 모이는 이른바 명당을 찾아내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중환이『택리지』의 〈지리〉에서 쉽게 정리하였다[15]. 근대에 와 일찍이 일본인 무라야마 지준이 새로운 용어로 정리해 놓았다. 풍수의 법술에 통달한자가 있다고 하면서 풍수의 구성 요소인 산·수·방위의 3대 요소에 의하여 성립되는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점혈법, 형국론에 관하여 그림과 함께 명당을 찾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세목별로 언급하고 있다(무라야마 지준, 1931). 이는 최창조(1984)의 분류에 따르면 경험론적 인식체계에 해당된다. 실제 산과 수 및 방위에 관한 언급으로 현대적인 서구적인 용어로 풀이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직접 관찰에 의하여 이루어진 여러 개념의 집합체이다. 간룡법은 명당에 이르는 매크로한 산줄기, 장풍법은 명당을 에워싸고 있는 마이크로한 동시에 매크로한 산줄기, 득수법은 명당을 중심으로 한 수계를, 점혈법은 아주 마이크로한 모습을, 형국론은 이들의 종합적인 모습을 말한다[16]. 그의 연장선상에서 명당을 찾는 방법에 관하여 보다 쉽게 박시익(1999)[17]이 제시하였다. 옥한석도 지기가 넘치는 곳은 이른바 명당은 반개방성, 중첩성, 안정성, 조화성, 균형성의 다섯 가지 특징(옥한석, 2003a)이 나타난다고 하며 이를 구체화시킨 열 가지 기준(옥한석, 2005)[18]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그 판별 방법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재영(2009)은 박사학위논문『조선왕릉의 풍수지리적 해석과 계량적 분석 연구』에서 19기 왕릉 각각 사신사의 거리, 높이, 경사도, 앙부각, 가시역, 유속성, 환포성과 용호의 길이, 내명당의 크기, 주산과 안산의 크기 비교. 입수의 방향, 좌향과 절대향, 혈의 사상, 환포궁각, 물줄기의 형상 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당의 취득은 그의 인품과 관련을 가진다는 소주길흉론, 명당과 망자의 후손이 서로 감응한다는 동기감응론 등과 함께 형국론 등의 이러한 방법은 객관적인 학문체계가 될 수 있기에는 부족하다.

명당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인 방위의 음양오행설이 있다. 동심원 상의 7번째원 등에 오행이 표시되어 있어 명당의 산수배치와 골짜기, 혹은 물의 흐름이 나침반에 표시된 음양오행에 따라 상극이 아닌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상극이 이루어질 때 황천살 등이라고 일컫는다. 음양오행설이 동양철학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풍수에 응용하고 있을 지라도 철학 체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음양오행이 방위로 표현될 때 예를 들어 왜 북쪽은 수, 동쪽은 목, 남쪽은 화, 서쪽은 금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침반 상에 팔괘나 지간의 배치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국 고대의 하도낙서(河圖洛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하다.

4) 명당의 표현방법

고전적인 풍수지리에서 명당은 대게 그림지도, 이른바 산도(山圖)라는 형식으로 표현되어왔다(양보경, 2011). 무수히 많은 산도[19] 중에서 숙빈 최씨「묘소도형여산론(淑嬪崔氏墓所圖形與山論)」의 분석이 최초로 이형윤과 성동환(2010)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이에 따르면 제목, 그림지도, 산론의 삼단방식으로 구성되어있고, 산악입체도로 표현되어 오늘날의 지형표현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명당의 혈이 위치하는 명당 국면은 환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시점은 그림의 중심에서 혈을 내려다보는 부감법을 사용했으며 명당국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지역만을 투시하는 반투시법을 사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시점의 흐름이 이동하여 혈처에서 멈추는 중심지향적 특성이 보이고 축척은 이중적축척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20].

이러한 명당의 표현 방법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산도로서 표현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지형도상의 산세를 이학동(2000)이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옥한석·이한방(2012)도『안동의 풍수와 인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특정 명당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형도와 지형도상의 산세를 숙지하여 전통적인 산도로서 제시하였으며, 특히 산도 상의 특징을 가지고 명당의 형태를 전후타원형, 높은 원만형, 낮은 원만형, 좌우타원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3. 고전적 풍수지리의 현대적 해석

1) 환경론을 중심으로 한 현대적 해석

풍수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는 다수 연구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형태를 통하여 명당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경험론적인 인식체계로 말미암아 풍수는 인간이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환경론적인 해석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것이 바로 환경론을 중심으로 한 고전 풍수지리의 현대적 해석이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지기는 터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현대적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한동환 · 성동환 · 최원석,1994). 이것은 토양, 온도, 습도, 빛, 미생물의 활동을 포함한 그 장소에서 인간의 몸과 연결된 자연현상 모두와의 접촉과 연결이 느낌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았다. 오늘날 습도, 온도와 같이 서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기계적 언어의 과학이라고 할 때 기계가 측정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몸이 본능적으로 측정한 자연에 대한 정보가 인간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아 기계적 장치로 자연현상을 측정하는 일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측정의 시도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적극적인 연구는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풍수지리에서 '땅의 기'라는 개념은 기후의 변화 및 농작물의 생장과정과 관련된 땅 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태양에너지와 순환하는 물, 그리고 그 순환을 담아내는 땅, 이 세 가지의 포괄적 관계라고 보았다. 풍수에서 지기를 가진 터는 포괄적인 관계의 움직임에 따라 성격과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한 땅에 나를 맞추어서 좋아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거주하고 생활함으로써 사람의 건강과 생명력을 추구하려는 동양적인 땅에 대한 지혜의 모음이라고 주장하게 된다(한동환 · 성동환 · 최원석,1994). 이러한 주장은 생태적인 환경관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지만 자연의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태양에너지, 순환하는 물, 순환을 담아내는 땅 이 삼자가 전통적인 풍수지리의 지기의 개념으로부터 진일보한 개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단지 '지혜'라고 하였다. 도교사상, 불교사상과 함께 풍수지리 사상이 서양의 환경결정론적 사상에 비교될 수는 있다고 하였으며(윤홍기, 2001) 환경사상 혹은 철학으로는 인식한 많은 연구자가 구체적인 어떤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것인지 환경론으로는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2) 상징체계로서의 해석

풍수사의 지기에 대한 인식과 방법은 하나는 '실제로 지기가 있으므로 해서 직관 등에 의하여 감응된다고 하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지기가 있음을 전제하고 겉으로 드러난 외부조건을 살펴 지기라는 그 무엇을 추론하는 경우'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과거나 지금이나 '지기'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밖에 없고 명당은 풍수사의 주관에 따라 무수하게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음양오행설이 공간적으로 표현된 나경(이른바 음양오행이 기재된 나침반)으로부터 알 수 있다는 인식은 동양철학과 연계되므로 풍수지리는 철학적인 인식이라는 주관성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지기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풍수학인들조차도 명당에 대한 견해가 이중적이거나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옥한석a, 2007). 이에 오늘날 일반인들이 '지기'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맹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관성을 인정하면서도 풍수는 하나의 '지리적 지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경관이나 장소의 해석, 담론의 사회적 구성으로 간주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풍수지리는 관념체계에 불과하다는 해석의 연장선 상에서 상징체계로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풍수담론이나 경관 장소의 의미 구성에 있어서 그 조건이 되는 사회적 권력관계를 범주화하였다(권선정, 2003). 또한 풍수가 도성 조영의 원리로 작용하면서 왕도 뿐 아니라 지방도시인 읍치와 마을의 입지 이론으로 작용하면서 산은 하늘의 권위를 땅의 권위와 연결시켜주는 중간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인식체계로

보기도 하였다(이기봉, 2009).

하나의 상징체계라고 하는 해석은 한국 풍수지리설의 독특한 자연관, 이른바 의물 의인화된 자연관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자연을 의인화 또는 의물화하는 이유가 일정한 주술적인 기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볼 경우(윤홍기, 1984) 풍수가 하나의 유사 종교에 불과하게 되므로 고급 지식체계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된다.

4. 전통생태학과 적응전략으로의 현대적 재해석

기존의 환경론을 중심으로 한 현대적 해석은 풍수가 지속가능한 환경조건의 보전과 유지를 위한 문화생태적 코드인 동시에 조절방식으로 기능한다는 생태적 체계로 발전적으로 재해석되었다. 이른바 생태학자, 지형학자, 지리학자가 함께 만나 풍수원리를 현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논의하였으며 이들은 스스로 최초의 과학적 시도라고 자평하였다(이도원·박수진·윤홍기·최원석, 2012). 기존의 환경론적인 해석과 달리,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풍수가 갖고 있다고 한 시도는 자연과학자가 풍수원리의 일면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풍수지리 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물의 순환 이론을 풍수지리에 적용하여 환경순환이론이 생기(이른바 지기)와 관련된다고 하며, '생기와 풍수의 환경순환 사이클'의 메카니즘 구명이 요청된다고 하였다[21]. 이러한 자연과학적 풍수지리 연구 시도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원래의 생태학이란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에 관한 연구이고 호수생태계, 해양생태계, 산지생태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리학은 자연지리학 분야에서 이들 생태계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자연과학적인 분석기구와 방법이 미비되어 주로 환경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게 되었다. 예를 들어, 호수생태계에 있어서의 부영양화와 BOD 등의 연구주제는 호수물의 채집과 분석, 실험 등의 연구가 뒤따라야하기 때문에 지리학계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전통생태학이라고하는 주장도 이러한 생태계 내에서의 실험결과가 이루어져야 설득력을 얻게 되며 앞으로 풍수에 관심이 있는 자연과학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실험이 장래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풍수가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학문분야로 발전될 것이다.

'지기'의 개념이 자연현상과 관련된 포괄적 지혜라고 하는 주장과 달리 고전적 풍수지리서인『금낭경』을 중심으로 하여 "기는 수의 근본(어머니)이며, 기가 있다는 것은 수가 있다"는 단서로부터 지기의 생리기후적인 근거를 옥한석이 주장하였다(옥한석, 2005). 지기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수용하지만 객관적인 측정의 가능성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기' 또는 '생기'에 대한 정의가 생리기후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이 시도되었다. 그는 풍수지리의 기본 개념인 '지기' 혹은 '생기'가 '연중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며 상대습도의 큰 변동없이 통풍이 잘되고 일조량이 상당한 조건을 작춘 곳의 쾌적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생리적으로 쾌적한(comfort)한 지형·기후조건을 갖춘 곳이 된다. 온도, 상대습도,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의 기후 자료에 근거를 둔 기후학자 Terjung, W. H.의 견해(Terjung, W.H. 1966; 1968)에 동조하면서 인간이 특정 장소에서 신체적으로 쾌적함을 느끼는 곳이 바로 명당이라고 하였다. 풍수지리는 특정 기후 조건 아래에서 보다 생리적으로 쾌적한(comfort)한 곳을 찾는 인간의 적응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며 쾌적한 여러 곳의 비교 측정 자료가 요청된다고 하였다(옥한석b, 2007). 보다 생리적으로 쾌적한 곳을 찾는 인간의 적응 전략, 특히 온대몬순계절풍이 부는 곳에서의 동아시아인의 적응전략이 풍수지리라고 보았다.

지형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장풍과 덕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생태론적인 해석과 함께 적응전략이란 견해도 모두 구체적인 측정데이터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생기' 혹은 '지기'에 관한 개념이 '지속가능성'이건 '쾌적성'이건 간에 측정데이터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측정된 자료가 전무하

기 때문에 새로운 현대적 재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가능한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한 분야로의 새로운 연구주제 탐색이 필요하다[22]. 어떤 측정 자료의 수집 가능성과 그 해석이 바로 '건강과 장수'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주제는 풍수지리와 관련을 맺으려는 시도이다.

건강한 사람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거주했던 장소를 조사한다면 풍수지리의 과학성과 함께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장소가 쾌적한가? 혹은 지속가능성이 있는 곳인가? 하는 질문이 갖는 애매모호함을 극복하여 '명당에 거주하게 되면 얼마나 건강해지는가? 아니면 장수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가 보다 더 구체성을 띠게 되고 또한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한 장소가 갖는 명당의 구체적인 형태가 인간의 심리적인 치유와도 관련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의 과학성과 관념성이 서로 일치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보겠다.

최근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주 환경 조건에 관한 경험적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음을 볼 때 건강과 풍수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최원석, 2012)에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풍수이론을 통해서 전통마을 거주환경의 조성원리를 탐색하거나(이학동, 2003), 전통생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을의 거주환경에 관한 현대적 조명(이도원 외, 2008) 등이 그것이다. GIS 기법을 이용한 전통취락의 지형적 주거입지 적합성 분석(최희만, 2005) 방법이 건강과 관련지어 풍수 연구를 할 때 채택될 수 있다고 본다.

5. 요약과 결론

한국의 지리학은 풍수지리라고 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근대 지리학과 접목시키지 못하고 단순하게 하나의 토지관, 사상관 혹은 유사 믿음관으로 자리매김시켜 왔다. 서양의 지리학이 한국에 이식되어 100년이 지난 지금 서양의 지리학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서양의 방법론과 내용을 아직까지 답습하고 있다. 무분별한 서양의 개론서나 연구서 번역을 탈피하여 이제 한국적 지리학의 내용과 방법이 제시될 즈음에 이르렀으며 이에 성숙한 지리학자의 연구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풍수지리도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이 연구는 첫째로 고전적 풍수지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해보고, 둘째로 그 내용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라고 하는 환경론적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해석되어 온 여러 시도을 정리해보며, 셋째로 환경론적 기존의 해석을 재해석하여 과학적 측면을 부각하고자 한다. 그동안 풍수지리에 관련하여 출간된 여러 서적과 논문 중 학계에 보고되고 출간된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문헌 연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전적 풍수지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기'와 '발복'이며, '발복'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길흉화복, 안위와 출세 등이 실행될 것이라는 '예견'으로 표현된다. '예견'은 산수방위의 조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음양오행설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명당을 찾는 방법은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점혈법. 형국론 등이며 이러한 경험론적 인식체계는 명당의 취득 및 그의 인품과의 관련을 가진다는 소주길흉론, 명당과 망자의 후손이 서로 감응한다는 동기감응론 등이 뒷받침한다. 산도로서 표현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학문체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험론적 인식체계 때문에 태양에너지, 순환하는 물, 순환을 담아내는 땅의 환경론으로 고전적 풍수지리를 해석함과 함께, 주관성이란 문제를 빗겨 가면서 풍수지리는 상징체계의 지리지식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시도를 하였다. 기존의 환경론을 중심으로 한 현대적 해석은 다시 생태적 체계로 재해석되었다. 생태학자, 지형학자, 지리학자가 스스로 최초의 과학적 시도라고 한 것이 이를 두고 말한다. 또 다른 과학적인 시도는 '지기'란 쾌적함이며 생리적으로 쾌적한(comfort)한 지형 · 기후조건을 갖춘 어떤 곳이 명당이라고 하면서 풍수지리는 특정 기후 조건 아래에서 보다 생리적으로 쾌적한(comfort)한 곳을 찾는 인간의 적응 전략으로 보기도 하였다.

보다 자연과학적인 진일보를 한 풍수지리의 현대적 재해석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측정 데이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학제적 노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고전 풍수지리의 핵심 내용인 '발복'이 건강, 장수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측정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일도 풍수지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방법이다.

주

1) 전통시대, 특히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문·무과와 함께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 등의 잡과를 두어 기술관을 등용하였다. 이중에서 음양과는 천문학·지리학·명과학(命課學)으로 나누어 선발하였다.
2) 전통 풍수지리보다는 현대적인 관점과 대비시키기 위하여 고전적 풍수지리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본다.
3) 오늘날 교보문고 등 서점을 방문하면 수많은 풍수지리 서적이 판매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학계에 보고된 전문연구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4) 학위 논문에서 '발복'과 '예견'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보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풍수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풍수 연구의 학술적 한계가 아닌가 보여진다.
5) 왕릉을 대상으로 하여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개 사상이나 신앙과 연결시키고 편은범(2006)이 형기와 좌향, 용혈사수 등에 의하여 길흉이 결정된다고 보고 하였다.
6) 인신사해(寅申巳亥)의 사세란 12지간(地干)을, 팔방은 건(乾), 감(坎), 간(艮), 진(震), 손(巽), 이(離), 곤(坤), 태(兌)의 주역 팔괘를 말한다. 아마 사세는 보다 매크로한 지리적 스케일 상에서, 팔방은 마이크로한 스케일 상에서 산능선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7) 이병도(1980) 등의 역사학자는 고려시대에 천도 논의가 있을 때 풍수도참 사상이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8) 이를 나경, 혹은 패철이라고 한다.
9) 천간과 지간이 둘씩 짝을 이루도록 표시하였으므로 12방위라고 할 수 있다.
10) 수는 진갑자(辰辛子), 목은 묘미해(卯未亥), 화는 오술인(午戌寅), 금은 축사유(丑巳酉)가 삼합이다.
11) 천간과 지간은 토(土)를 제외하고 짝을 이룬다.
12) 숙빈 최씨의 자녀 중에 사유축(巳酉丑)의 해에 태어 난 사람이 병신년(丙辛年)에 발복한다는 뜻이다.
13) 팔괘는 진손이곤태건감간(震巽離坤兌乾坎艮)이며 이중에서 동사택은 건태곤간(乾兌坤艮), 서사택은 진손이감(震巽離坎) 의 조합을 말한다.
14) 문과 안방의 조합이 8괘×8괘인 64괘이고 주역의 해석에 따른다.
15) 이중환은 먼저 수구를 보고 다음으로는 들판의 형세, 그 다음에 산의 모양과 흙빛, 수리, 조산과 조수를 본다고 하였다.
16) 때로는 사람, 동물 등으로 상징화시켜 표현되기도 한다.
17) 그는 7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상의 앞과 뒤를 구분한다. 생기가 모이는 공간은 산의 앞면이므로 이곳을 선택한다. ②산봉우리를 중심으로 품격·체형·오행산을 구분한다. 산을 품격에 따라 주인격·보조격·배반격으로 구분하는데, 주인격 산이 가장 좋고 보조격은 그 다음으로 좋다. 배반격은 좋지 않으므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산의 체형을 볼 때도 강체와 중체를 고르도록 하고, 약체는 가급적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병체인 산은 절대 고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의 형태를 오행산으로 분석해서 강한 기운이 있는 목산·금산·토산을 고른다. 기운이 분산되는 화산이나 수산은 피한다. ③산 정상에서 연결되어 내려오는 중심 용(능선)을 찾는다. ④청룡과 백호, 안산을 살핀다. 이들 용호(청룡과 백호)가 앞쪽으로 명하고 있으면 생기를 만들어서 좋지만, 뒤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배반하는 기운을 갖고 있으므로 좋지 않다. ⑤물이 흐르는 모양과 수구를 살핀다. 물이 곡선으로 흐르며 역수하는 곳이 명당이다. 수구는 좁아야 한다. ⑥중심 용의 중간 부분에서 명당을 찾는다. ⑦방위를 분석해서 주건물과 대문의 위치를 정한다.
18) 그는 10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시야가 반쯤 열리고 안산과 조산을 이루어내는 산줄기가 3겹 이상 펼쳐지는가?(안산과 조산, 들) ②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 산줄기 사이로 작은 하천, 큰 하천이 차례로 에워쓰고 있으며 수구가 막히었는가?(물기로가 수구) ③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 산줄기 상에 상징적인 산봉우리가 나타나는가?(산모습) ④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의 산줄기의 간격이 어떠한가?(짜임새) ⑤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좌우대칭적인 방향은 어떠한가?(정향) ⑥특정 사이트에서 뒤를 보았을 때 조산에서 주산, 주산에서 특정 사이트까지 산줄기의 흐름이 뚜렷한가?(용의 흐름과 입수) ⑦특정 사이트에서 뒤를 보았을 때 주산이 뚜렷하고 안정적인가?(주산) ⑧특정 사이트에서 좌우를 보았을 때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가 좌우 양쪽에 있는가?(좌청룡, 우백호, 각) ⑨특정 사이트에서 좌우를 보았을 때 산줄기가 에워싸며 기복을 보이는가?(산의 앞 뒤, 품격) ⑩특정 사이트는 밥공기를 뒤

집어 놓은 것처럼 안정된 모습이며 토질이 좋은가?(혈처의 모습)

19) 『인자수지』가 풍수를 산도로서 표현한 최초의 문헌이 아닌가 생각된다.

20) 그림지도의 부기에는 물의 래거와 방위, 주위 사격의 명칭, 지리적 위치, 풍수적 논평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기풍수적경향이 짙은 예언적 참언을 말한다.

21) 이 사이클의 중심은 음양의 기이며 미스터리라고 윤홍기가 말하였지만(이도원 · 박수진 · 윤홍기 · 최원석, 2012) 이는 온도의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 '지기'가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즉 명당을 둘러싸고 있는 청룡 · 백호 · 주작 · 현무의 네가지 요소에 의하여 에너지 응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재영, 2009).

참고문헌

권선정, 2003, 풍수의 사회적 구성에 기초한 경관 및 장소 해석,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덕현, 2011, "전통적 자연관,"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180-227.

김동규 역, 1992, 풍수지리인자수지, 명문당.

무라야마 지준, 1931, 조선의 풍수(최길성 역, 1990), 민음사.

박시익, 1999,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박정해, 2012, 조선 유교건축의 풍수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동환, 1992, 풍수 이기론에 대한 문헌 고증학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심혜자 · 최기엽, 1993, "전통촌락의 상징적 공간 구성," 응용지리 16,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89-135.

양보경, 1994, "조선시대의 자연인식 체계," 한국사시민강좌 제14집, 일조각, 70-97.

양보경, 2000, "전통시대의 지리학,"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한울 아카데미, 15-98.

옥한석, 2003, 강원의 풍수와 인물, 집문당.

옥한석, 2003a, "안동의 풍수경관 연구: 음택 명당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8(1), 70-86.

옥한석, 2003b, "북한강 유역에 있어서 경관 풍수에 의한 전원주택 후보지의 선정," 사진지리, 13, 한국사진지리학회, 59-72.

옥한석, 2005, "경관풍수의 본질과 명당의 선정기준: 북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7(3), 22-32.

옥한석, 2007a, "서울의 기후 · 지형 요소와 경관풍수에 의한 왕궁터의 평가," 문화역사지리, 19(1), 78-90.

옥한석, 2007b, "환경적응 전략으로서의 풍수지리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2(5), 761-768.

옥한석 · 서태열, 2005, "행정중심 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작품: 풍수에 입각한 평화생태도시(Peaceful Ecopolio)," 입선작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옥한석 · 이한방, 2012, 안동에서 풍수의 길을 묻다, 집문당.

윤홍기, 1994, "풍수지리설의 본질과 기원 및 그 자연관," 한국사시민강좌, 14, 일조각, 187- 204.

윤홍기, 2001,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대한지리학회지, 36(4), 343-355.

윤홍기, 2004, "풍수지리의 환경사상," 한국의 전통생태학 1, 사이언스북, 48-75.

이기봉, 2009, "수도 한양의 조선적 국도숲 이해," 문화역사지리, 21(1), 223-242.

이도원, 2005, 전통마을 경관 요소들의 생태적 의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도원 등, 2008, 한국의 전통생태학 1·2, 서울 사이언스북스.

이도원 · 박수진 · 윤홍기 · 최원석, 2012, 전통생태와 풍수지리, 지오북.

이몽일, 1990, 한국풍수사상의 변천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이병도, 1980, 고려시대의 연구: 특히 도참사상의 발전을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사.

이승노, 2011, "전통지리학의 주택입지와 내부공간의 방위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풍수론의 양택삼요와 민택삼요론의 비교 및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3(2), 181-196.

이재영, 2009, 조선 왕릉의 풍수적 해석과 계량적 분석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학동, 2000, "오대산 적멸보궁의 입지 형세와 풍수지리적 해석," 실학사상연구, 14, 913-979.

이학동, 2003, "전통마을의 분석과 풍수지리이론을 통해

본 주거환경 조성원리의 탐색," 거주 환경, 1(1), 131-168.
이형윤 · 성동환. 2010, "소녕원 산도의 지형표현 연구: 숙빈최씨묘소도형여산론(淑嬪崔氏墓所圖形與山論)의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2(3), 20-39.
조운연, 2008, 조선 왕릉의 능역 복원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인철, 2011, "풍수고전『장경』에 나타난 풍수이기론에 관한 연구:사세팔용법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20(1), 117-134.
최원석, 1992, 풍수의 입장에서 본 한민족의 산개념,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최원석, 2000, 영남지방의 비보,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원석, 2012, "조선후기의 주거관과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 건강 장수도시의 한국적 원형 탐구를 위한 문헌 고찰," 국토연구, 73, 3-27.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최창조 역, 2004, 청오경 · 금낭경: 풍수지리학의 고전, 7쇄, 민음사.
최희만, 2005, "GIS를 이용한 전통취락의 지형적 주거입지 적합성 분석," 지리학연구, 24, 300-319.
편은범, 2006, 조선왕릉의 좌향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 사회개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동환 · 성동환 · 최원석, 1994, 자연을 읽는 지혜: 우리 땅 풍수 기행, 푸른 나무.
홍순완 · 이몽일, 1989, "한국 풍수지리에 대한 이해의 쟁점," 경북대학교 논문집 2, 경북대학교, 93-115.
Terjung, W. H., 1966, Physiologic climates of the conterminous United States: A bioclimatic classification based on man, *Annale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es*, 56(1), 141- 179.
Terjung, W. H., 1968, World patterns of the distribution of the monthly comfort index, *International Journal of Biometeorology*, 12(2), 119-151.

교신: 옥한석,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ock@kangwon.ac.kr, 전화:010-9480-0007)
Correspondance: HanSuk Oak,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 Univerity Rd, Chuncheon 200-701, Korea (e-mail: ock@kangwon.ac.kr, phone: +82-10-9480-0007)

최초투고일 2013. 12. 5
수정일 2013. 12. 17
최종접수일 2013. 12. 21